

금요 양성 2025년 8월 15일

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

재속 프란치스코회원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은근한 선교자이다. (2부)

우리 재속프란치스코회원은 서약할 때, 세례의 약속을 심화한다. 우리는 복음화의 전선에 앞장 서라고 불리어졌다. 사람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거나 설교 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 회칙을 살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은근한 선교자들**이다.

각 조항에 따르는 질문들은 소그룹이나 기도 파트너와의 토론, 또는 저널 쓰기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12조 "...자유롭게 하느님과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것이다..."

+ 하느님과의 관계, 또 다른사람들과의 관계를 튼튼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집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3조 "... 회원도 모든 사람을 주님의 선물이자 그리스도의 모상으로, 겸손하고 인간답게 받아들일 것이다.

+ 가족, 형제회, 동료, 친구,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등등 그들과의 우리 관계가 복음 선포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생각해 보시오. 도움이 되는 경우와 도움이 안되는 경우의 예를 들어 보시오.

14조 "...세상을 더욱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것으로 건설하도록 불리운 회원은 ..."

"...크리스천의 봉사 정신으로 자신의 책임을 힘껏 완수해야 한다." ²

+ 당신의 특별한 책임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 그 책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15조 "회원은 정의를 촉진하도록 자신의 개인 생활로써 증거하고,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활기에 찬 창의력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 개인적으로 또 형제회원들과 함께 정의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6조 "회원은 노동을 하느님의 선물로 알고, 창조와 구원 업적 및 인류 공동체에 대한 봉사와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²⁷

+ 일을 통하여 어떻게 증거하는가?

+ 이 증거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17조 "회원은 가정 안에서 평화와 성실, 생명 존중의 프란치스코 정신을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 쇄신된 세상의 표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²⁸

"무엇보다도 부부들은 혼인의 은혜를 살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서 증거해야 한다."

평신도로서, 우리는 가족안에서 선교를 할 기회가 있다.

- + 우리 회칙이 가족 관계를 어떻게 도우는지 예를 들어 보시오.
- + 배우자나 자녀들 또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어떻게 모범을 보여주는가?

18조 “이밖에도 회원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표지를 지닌” 다른 피조물, 곧 생물과 무생물에게까지 존경심을 표현하고 ...”

- + 이 세상을 미래의 세대를 위한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당신은 어떤 기여를 하는가?
- + “지극히 높으신 분의 표지”를 자연에서 어떻게 알아 보는가?

19조 "회원은 평화의 전달자로서 평화를 끊임없이 건설해야 함을 기억하여, 누구든지 신적 요소가 있으며 사랑과 용서로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음을 신뢰하고, 대화를 통해서 일치와 형제적 화합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회원은 완전한 기쁨의 선포자이므로 어떤 처지에서든지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 + 직장이나 자원봉사 활동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는가?
- + 분열이 생긴 집단에서 평화와 화목 증진을 어떻게 도우는가?
- +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예를 들어 보시오.

조언 (형제회의 영속 양성 프로젝트를 위해): 프란시스 교황님의 “복음의 기쁨을 읽고 우리 회칙과 비교를 해 보라. 아주 좋은 양성 체험이 될 것이다.